

20세기 초 내방가사 <정화가>·<정화답가>에 나타난 다정한 소통 방식과 공동체적 정서

Affectionate Modes of Communication and Communal Emotion in <Jeonghwaga> and <Jeonghwadapga>

김윤희^{*)}

국문요약 본고는 만주 망명지에서 창작된 내방가사 <정화가>·<정화답가>를 대상으로, 두 작품의 다정한 소통 방식이 여성 공동체의 정서적 결속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작가 고증과 서지 중심이었다면, 본고는 두 작품을 화답 구조 속에서 읽으며 말걸기-응답-되받아 말하기가 만드는 감정의 순환에 주목하였다. <정화가>에서 김우락은 반복적 호명, 다정한 말걸기, 유머와 조롱을 통해 가족 공동체를 돌보고 관계를 활성화하는 정서적 실천을 보인다. 이는 캐럴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에서 말하는 응답성과 관계적 책임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고난 속 공동체가 함께 버티는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언어 전략이었다. 이에 대한 <정화답가>는 조롱에 대한 되받아 말하기, 해명, 미래적 약속을 통해 돌봄의 정서를 연대와 희망으로 확장하며, 두 작품은 웃음·위로·약속이 순환하는 감정 공동체의 역학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호적 응답 구조는 안동 내방가사의 전통적 문화 원리가 망명 상황에서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성들이 창작·필사·낭송·답가를 통해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지탱해 온 내방가사의 문화적 기능을 재확인시킨다. 나아가 두 작품은 망명이라는 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언어문화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적 관계를 지속해 왔음을 보여주며, 만주 망명 내방가사를 관계 중심의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핵심어 내방가사, 만주 망명 가사, 정화가, 정화답가, 다정한 소통, 돌봄, 공동체 정서

- 차례**
1. 서론
 2. <정화가(情話歌)>에 보이는 다정한 말걸기와 돌봄의 윤리
 3. <정화답가(情話答歌)>에 보이는 응답과 감정의 공동체
 4. 경북 내방가사의 전통과 다정한 소통 문화
 5. 결론

1. 서론

1911년 경북 안동에서는 석주 이상룡을 중심으로 한 고성이씨 일문과 백하 김대락·일송 김동삼을 중심으로 한 의성김씨 문중에서 대규모 만주 망명이 이루어졌다. 안동은 일제 강점 직후 자정순국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었고 망국(亡國)에의 저항을 죽음이 아닌 만주 망명으로 실천한 것은 그곳이 우리의 옛 영토라는 민족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¹⁾ 이와 관련된 남성들의 기록은 이상룡의 『석주유

• 이 논문은 국립경국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경국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1 강윤정, 「안동사람들의 만주 망명과 고난의 여정」,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7~11쪽.

고,² 김대락의 『백하일기』³ 등이 남아 있어 역사학과와 한문학 쪽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고순희를 통해 이 시기 안동 여성들이 만주에서 남긴 가사들의 작가, 창작 연도 등이 확인되면서 ‘만주 망명 가사’로 통칭될 수 있는 자료들의 범주화가 진행되었으며⁴ 이후 국문학계에서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작품들은 역사적 고난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내면과 관계 지향적인 소통 방식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한문 자료들에 대한 보완적 기록물로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확인된 만주 망명 가사는 대략 16수 정도인데, 저자별로 보면 석주 이상룡의 부인 김우락 여사가 <해도교거사>, <간운스>, <조손별서>, <정화가> 등 네 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셨다. 이 중 고국에 있는 손녀에게 썼던 <조손별서>에 대한 답가 <답사친가>가 남아 있고 만주에서 ‘며느리들’에게 썼던 <정화가>에 대한 답가 <정화답가>가 남아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지역이 나가문 단위의 망명이었던 만큼 여성들은 친숙한 소통 수단이었던 가사를 서로 주고받으며 불안한 망명 생활 속에서도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조율하는 ‘다정한 언어 공동체’를 형성해 갔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만주 망명지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상호적 글쓰기와 정서 교류가 가장 선명하게 확인되는 사례로서 <정화가>와 <정화답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우락 가사 관련 연구는 고순희가 <간운스>와 <조손별서>의 저자를 김우락으로 고증⁵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뒤이어 김우락의 손부 허은(許銀, 1907~1997) 여사가 간직해 온 <해도교거사>가 안동시 유교문화보존회를 통해 공개⁶

되면서 독립운동가로서 김우락 여사의 역할도 재조명되었고,⁷ 더 나아가 <해도교거사>, <정화가>, <정화답가>가 함께 수록된 복사본 자료가 소개⁸되면서 김우락 가사의 작품 세계와 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⁹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 영남 여성들이 창작·필사·낭송·답가를 통해 공동체적 감정과 경험을 축적한 독특한 여성 기록문화이다. 이정옥이 이를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여성 기록유산’으로 평가¹⁰한 바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내방가사는 202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되었다. 아울러 올해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로 선정되며 기록문화적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만주 망명 가사는 이러한 경북 내방가사의 전통이 이역(異域)의 망명지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 지속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국난의 위기 속에서도 여성들이 서로의 감정과 일상을 지지하기 위해 다정한 연대의 언어를 실천하고 전승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려 했던 노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화가>와 <정화답가>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주 망명 가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각 작품의 작가를 고증하고 창작 배경을 정밀하게 밝히며, 개별 텍스트의 주제·정서·미학을 깊이 있게 분석

2 이상룡,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上), (下), 경인문화사, 2008.

3 김대락,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4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연구』, 박문사, 2014.

5 고순희, 「만주망명 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고순희,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고증적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6 정연정, 천명희, 「고성 이씨 소장 『해도교거사』의 국어학적 가치」, 『어문론총』 68, 2016.

7 이 작품을 토대로 김우락 여사는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되어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남편 이상룡이 이미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60여 년의 간극은 여성 기록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것이다.

8 성호경/서해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해도교거사>·<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46, 한국시가학회, 2019. 본문에서 인용하는 작품들의 원문은 이 논문에 소개된 자료에 의거한다.

9 공개된 <해도교거사> 두 이본(異本)은 작품의 내용과 분량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곳곳에서 자구(字句)의 출입과 단락의 차이, 누락된 구절들에 대한 상호 보완 등과 같은 유의미한 차이점들이 발견됨이 확인되었다. 김윤희,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의 새로운 이본 자료 소개」, 『우리문학연구』 67집, 우리문화회, 2020.

10 이정옥,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 『국학연구』 40, 국학연구원, 2019.

해왔다. 이러한 축적된 논의를 토대로 이제 작품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나 확장적 의미망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만주 망명이라는 공동의 경험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말을 걸고 응답하며 관계를 지속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정서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는지 등은 여전히 학술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관계 지향적 가사 문학을 분석하는데 있어 캐럴 길리건(Carol Gilligan)과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논의는 유의미한 해석 틀을 제공한다. 길리건은 『침묵에서 말하기로(In a Different Voice)』에서 여성의 도덕적 감수성을 관계성·응답성·배려의 실천으로 파악하며, 타자에게 말을 건네고 반응을 수용하는 상호작용의 구조를 중요하게 보았다.¹¹ 이는 <정화가>와 <정화답가>에서 반복되는 호명과 다정한 말걸기, 감정의 교환 구조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또한 누스바움은 『타인에 대한 연민(The Monarchy of Fear)』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타자를 배제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감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민과 공감, 상호 의존성의 자각과 같은 공적 감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¹² 이러한 관점은 망명 상황 속 여성들의 말하기가 단순한 개인적 감정 표출을 넘어,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함께 버티기 위한 정서적 결속을 생산하는 언어 행위로 기능했을을 보여주고 이는 만주에서 가사가 창작되고 향유되던 양상과 매우 맞닿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정화가>·<정화답가>에 나타난 호명·말걸기·응답·감정의 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두 작품이 보여주는 다정한 소통 방식이 어떻게 공동체적 정서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내방가사 전통이 지닌 여성적 관계 맺기와 정서 실천의 문화를 바탕으로, 망명이

라는 위기적 조건 속에서도 여성들이 서로의 삶과 감정을 지지하고자 했던 언어적 실천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기도 하다.

분석은 먼저 <정화가>에서 확인되는 다정한 말걸기와 돌봄의 감정에 주목하여, 가사의 어떠한 표현과 내용이 관계적 지지를 수행하고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어 <정화답가>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의 방식이 어떻게 정서적 공동체로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하기와 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지지적인 대응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호적 소통 방식은 경북 지역에서 전승된 내방가사 전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여성 사이의 정서적 교류, 다정한 언어 문화, 관계 중심의 글쓰기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이에 본고는 두 작품을 내방가사 향유 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만주 망명 가사가 지닌 연속성의 의미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고의 시도는 앞으로 만주 망명 가사를 포함한 내방가사 연구가 개별 작품 분석을 넘어, 관계·공동체 정서·다정한 소통 문화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사이기도 하다.

2. <정화가(情話歌)>에 보이는 다정한 말걸기와 돌봄의 윤리

1912년 김우락은 만주 유하현(柳河縣) 대우구(大牛溝)에 살고 있었는데 통화현에 거주하던 큰오빠 김대락이 김우락의 집에 찾아왔고 하루 뒤에 김우락은 종질과 종손의 간청에 따라 이틀간 70리 길을 걸어 오빠 집으로 가서 7~8일가량 머물렀다. 그 근방에 거주하던 김우락의 시댁 집안 식구들, 친정 가족들과 조카들을 만나 통화현(通化縣)을 구경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정화가>는 친족들과의 이 소중한 만남에 대한 기록이다. ‘정답게 말을 건

11 캐럴 길리건, 이경미 역, 『침묵에서 말하기로(In a Different Voice): 심리학이 놓친 여성의 삶과 목소리』, 심심, 2020.

12 마사 누스바움, 임현경 역, 『타인에 대한 연민(The Monarchy of Fear)』, 알에이치코리아, 2020.

네는 노래'라는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단순한 여성 기록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매개로 친족들과의 공동체적 정서를 환기하는 문학이었던 것이다.

어와 마느리들 이너 말삼드라시오
어와 이너 몸이 가죽히 출가호여
어와 저 마느리 흥안늑발 어제더니
어와 우리 가형 또한 원통호은거시오
어와 우리 가형 또한 말삼드라시오
어와 마느리들 이향슈심 치우시고 나와 함귀 노스이다
어와 저 마느리 뉴한정정 어진 부덕
어와 아너 몸이 남즈로 나섰던들

-〈정화가〉

어와 우리 현군 이너 말삼드라시오
어와 우리 현군 스십년 동귀지의
어와 마느리들 나의 말삼드라시오
어와 마느리야 잇디 고상 흥을 마라
어와 마느리들 만계만계 호읍시(소)
어와 마느리야 귀똥한 저히들을 층층이 거나리고
어와 우리 현군 이너 말삼드르시오
어와 우리 현군 너 말을 즈세 듯소
어와 우리 종씨 불초무상 한을 마오

-〈정화답가〉

위의 두 인용문은 〈정화가〉, 〈정화답가〉 전편에 걸쳐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구문을 정리해본 것인데 '어와'로 시작되면서 '우리', '머느리', '가형', '현군' 등과 같이 청자를 부르는 방식이 확인된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지향하는 양식이라 청자 호명 방식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미적 지향의 구체성, 소통 지향성 등을 보여준다.¹³ 위의 두 사례의 경우 작품이 전개되는 곳곳에 반복적

으로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그 호명 대상이 '벗님네'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친족 관계에 있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작품은 만주 망명지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의 반가운 회포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인 만큼 이러한 반복적 수사는 다정한 마음을 건네는 의례적 언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회의 기쁨이 공동체적 정서로 확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와 마느리들 이향슈심(離鄉愁心) 치우시고 나와 함귀 노스이다'와 같은 제언을 보면 고향에서 공동체였던 일원들이 만주에서 흩어져 지내다 다시 모인 상황에 대한 감격이 발견된다.

캐럴 길리건은 기존 도덕 이론이 추상적 원칙에 치우쳐 여성의 삶에서 인간관계, 도덕, 명확한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것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성의 목소리에 가려지고 침묵했던 여성들의 언어에 주목해보면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에는 돌봄 윤리의 진실이 있고, 관계와 책임의 연대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정화가〉에 보이는 관계 지향적 언어와 다정한 표현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증언해주는 문학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어와 마느리들 나의 말삼드라시오/ 천지는 만물지영예오
광음은 빅디지과직이라/ 인심이 빅년이라 아니 놀고 무엇호리
/ 지금 와서 이 세월의 우리 (들) 늘근 스람/ 어디 가며 (못)
같나다 횃두루 구경호여/ 좁은 속을 넓게 호고 직회를 위로호
신/ 자인호신 영희 사장 이리 와서 모히는 계/ 천직일시 아니
령가 갓치 가셔 노스이다

어와 마느리야 잇디 고상 흥을 마라/ 우리들 이왕 시절 심
규의 곱히 드러 숙형을 기리 삭고/ 꼭그랑 언문칙과 침선을
벗을 삼아/ 춘삼월 호시절과 추칠월 괴망야를 무미히도 보너

한국고전문학회, 2024, 20~21쪽.

¹⁴ 캐럴 길리건, 앞의 책, 394~406쪽.

¹³ 박애경, 「가사문학의 장르 수행과 공동체의 감각」, 『고전문학연구』 66,

더니/ 풍진은 불행이나 망나을 버셔나와/ 길지를 차즈와서
이런 구경 잊지하라/ 어와 마느리들 만계만계 흐옵시(소)/ 영
 용열사 다 모혀서 열심 합역 흐신다니 복국이 쉬우리라/ 말이
 깃지 모혀 놓고 동거일촌 하게 되면/ 노상 이리 모혀 놓고 니
 성이 친구 되고/ 친척이 화목하여 피식이 업슬 거슬 각이 하니
 이들호오

위의 두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며느리에 대한 제언은 단순한 훈계나 감정적 토로가 아니라 관계적 책임의 언어, 그리고 다정함과 연대의 정서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밑줄 친 내용들을 보면 화자는 만주에서의 객회(客懷)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같이 놀고 구경하자’고 며느리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금의 고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을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 고향에서 보낸 여성들의 삶은 방 안에서 언문(諺文)과 침선(針線)을 벗삼아 무미(無味)하게 보냈었지만 오히려 만주라는 ‘길지(吉地)를 찾아와’ 함께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평온했던 고향에서의 일상이 분명 그리울 것이지만 김우락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족들과의 관계와 연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의도적인 긍정의 언어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만주 망명을 추방이나 상실이 아닌, 독립을 위한 능동적 실천으로 보아 ‘희망과 미래 지향적 가능성의 공간’으로 만주를 인식하자는 공동체적 독려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사를 통해 구성되는 이러한 다정한 말걸기의 방식은 서로의 취약성에 응답하며 함께 버티기 위한 관계적 책임의 언어로 기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영용열사 다 모혀서 열심 합역 흐신다니 복국이 쉬우리라’라는 구절에서도 선명하게 확인된다. 김우락이 제시하고 있는 ‘동거일촌’은 단순한 희망적 구호가 아니라, 재회 순간에 일시적으로나마 구현된 공동체적 감정을 기반으로 ‘함께’ 그려볼 수 있는 미래였던 것이다. 독립이 되면 늘 이렇게 모여서 놀고 서로 친구가 되며 친척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다정한 언어들은 집안 어른으로서의 책임

이 반영된 말하기이자 망명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는 정서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정한 말걸기의 방식이 유머와 농담의 언어로도 작품에 구현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김우락은 만남 과정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의도적으로 가사에 재현하면서 두 며느리를 놀리고 있다.

㉠ 두 마느리 흐난 말이 예바귀 드러보오/ 우리난 여귀와
 서 잠(적)¹⁵을 못 이기(너)/ 산 넘에 놀노 가니 주인들이 인후
 흐여/ 슈반을 놓히 다마 두 썩에 열 그랏설/ 낭즈히 더르 압회
 노하 반가이 다 먹으니/ 함포고복 흐던 즈랑 희식이 만면이
 라/ 명민¹⁶흐 내 마암이 십늬에 우수우나/ 위로쪼로 나의 말
 이 핑즈의 호년기도/ 꼭되로서 나게시고 악양누도 식후라니/
 현섬에 더든다¹⁷ 쏘 조히조히¹⁸ 즐 즈겻노/ 그 말을 올케 듯고
 분분이 흐난 말이/ 물 건너 뉘(뉘)의난 즐고 긴 유죽¹⁹(뉴)란/
 한 바가지 담아 주어 만히 먹(잔) 즈랑흐니/ 십늬에 심각흐니
우습고 고이흐다

㉡ 어와 저 마느리 뉴한정정²⁰ 어진 부덕/ 물욕지심 업(셋)
 더니 노욕이 고이호오/ 길바닥의 콩줍기와 산기실에 열미 짜
 기/ 걸낭²¹ 갖흔 흥쭈머니 압회 츠고 엽회 츠셔/ hing보를 잊지
 호오 일티²² 장강²³ 긴 다리를/ 정춤정춤 건너가셔 물가의 가
 바라보니/ 저 마느리 거동 보소 질아에게 붓들여셔 엉금엉금
 기는 양이 두슬 먹은 아히런가/ 우습고도 절창이야 혼즈 보기
 앓가와라/ 농담으로 길 거르니 고상을 잊게고나

15 잠(적): 쉴쉴하고 적막하다는 의미인 ‘잠적(岑寂)’으로 보임.

16 명민(明敏): 총명하고 민첩하다.

17 현섬에 더든다: 나이 든 사람이 밥을 더 먹는다는 의미의 속담인 ‘현 섬에 곡식이 더 든다’의 줄임말로 보임.

18 조히조히: 문맥상 ‘조용히조용히’의 줄임말로 보임.

19 유죽: 나무나 대나무의 우두머리에 있는 가지.

20 뉴한정정(幽閑靜貞): 부녀의 태도나 마음씨가 암전하고 정조가 바름

21 걸낭(걸낭): 걸머지고 다닐 수 있게 엮어 만든 주머니.

22 일티(一對): 한 쌍

23 장강: 정강이

위의 인용문은 가사에는 연속적으로 나와 있지만 두 며느리를 놀리는 방식의 차이가 보여 편의상 A와 B로 구분해 보았다. A는 많이 먹은 걸 자랑하는 두 며느리에 대한 조롱, B는 물욕을 부리는 며느리들의 행태와 거동에 대한 조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A의 경우 두 며느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산 넘어 놀러간 집에서 음식 대접을 꾸밈하게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인들이 인후하다’, ‘수반을 높이 담았다’, ‘두 끼에 열 그릇을 가득 덜어 앞에 놓아 주어 반가이 더 먹었다’, ‘함포고복’ 등과 같이 자신들의 체험을 다분히 과장적 언사로 과시하고 있음을 확인된다. A의 첫 번째 밑줄인 ‘명민한 내 마음이 마음 속으로는 우스우나’의 구절에 보듯이 김우락은 그들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나 짐짓 숨기며 ‘위로하듯’ 건네는 말이 ‘맹자의 호연지기도 먹은 후에 생긴다’, ‘악양루도 식후라니’와 같이 ‘아주 좋은 경험하셨네’와 같이 비꼬듯이 반응한다.

나아가 ‘나이 든 사람이 밥을 더 먹는다’의 의미를 가진 ‘헌 섬에 곡식이 더 든다’라는 관용구를 끌어와서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잘 먹었다고 하니 이제 ‘조용히 잘 자겠네’와 같이 많이 먹는 그녀들의 모습을 조롱하고 있다. ‘와 잘 먹어서 좋겠다!’, ‘고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혹은 ‘잘 대접 받아 부럽다!’와 같은 일반적 반응이 아니라 ‘비틀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화가>는 내방가사로서 독자적 의미망을 지니는 작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울케의 반응 양상 또한 흥미롭다. ‘분분(忿憤)’이 항변하며 마치 실은 그게 아니라 ‘물 건너 누구 집에 자란 잘고 긴 대나무 가지를 한 바가지 담아 주어 많이 먹었다고 자랑’한 거라며 사태의 진실을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우락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하니 우습고 별나다’와 같이 반응하며 그녀들에 대한 조롱을 B와 같이 이어간다.

B를 보면 얌전하고 바를 줄 알았던 두 며느리가 물욕이 없는 줄 알았었는데 ‘노욕(老慾)’이 생긴 것인지 ‘길바닥의 콩과 산기슭의 열매’를 담은 주머니를 앞과 옆에 차

고 걸어가는데, (너무 많이 담아서인지) 두 다리를 ‘정충정충’ 건너가고 ‘질아(姪兒)’의 붙들여 ‘엥금엥금 기어가는 모습’이 마치 ‘두 살 먹은 아이’처럼 우스워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라며 작품을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희적 조롱은 B의 밑줄 친 내용처럼 ‘농담하며 길을 걸어 고생을 잇는다’는 진술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머가 개인의 은밀한 유희가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웃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공유적 정서 경험이라는 점이다.

경북 내방가사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조롱 형태의 놀이’로 향유된 양상인데 주로 화전가류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²⁴ 그리고 이러한 화전가류 가사는 대부분 가문 중심의 사대부 문화가 발달했던 안동 지역에서 창작·소통되었는데 가문과의 결속을 다지고 흥취를 공유하며 이어가기 위해 화전놀이가 끝난 이후에도 답가 형식으로 ‘조롱 형태의 가사 놀이’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사 작품에서 조롱은 다분히 ‘답가’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된 기획²⁵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에서 발견되는 <정화가>의 조롱 또한 의도적이며 다정한 말걸기이며 상대의 응답을 불러내는 관계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조롱은 관계를 끊기 위한 공격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호출이며, 서로의 말하기를 이어가게 하는 언어적 장치였던 것이다.

<정화가>의 조롱은 상대를 비하하기 위한 공격적 언술이 아니라, 응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다정한 말걸기로 기능하고 있다. 그 결과 김우락의 가사에서 조롱과 유머는 망명지의 혹독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지위버리는 장치도 아니라,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서를 회복·재조율하는 돌봄의 기술로 작동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언어적

24 권순희, 「조롱 형태의 놀이로서의 규방가사」, 『민족문화연구』 제42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132~136쪽.

25 권순희, 「화전가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53, 민족어문학회, 2006, 17~25쪽.

실천은 경북 안동 지역에서 가문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어졌던 ‘놀이하는 가사 문화’의 전통이 망명지에서도 지속·변용되며,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봉 갖흔 우리 사회 압희 서서 인도호고/ 화미흔 나의 익녀²⁶ 뒤히 서서 부익호고/ 허위허위 츠즈와셔 골밭글 향히 오니/ 쌍쌍한 어린 즈손 거긔 와서 기다리너/ 몇 하나 그렸던고 안치며 반겨호너/ 산을 향히 올라오니 뉴화한 나의 효부/ 전지도(지) 마조나와 부익호여 드러가고/ 존중호신 노군즈는 사창을 반기호고 미친 스람 온다 하니/ 나의 흥지 싱각하니 즈당 감슈 할(빛) 업너/ 이곳은 어딤런고 무릉선원 여기로다/ 어린 즈손 버즐 삼아 한가히 날 보너니/ 양호의 노던 일이 일장춘몽 헛부도다/ 식로 영화 괴디호고 희망 부쳐 지너다가/ 호시기가 닷치거든 청명일월 다시 보시/ 별회를 못 이기여 일련 가스 지어너니/ 공부 업슨 저줄(글노) 문랄 고안침시 참괴하오/ 간신 이지은 글을 비언부도 마르시고/ 슈용스출문장으로 답가지어 보너시소/ 심심할 적 읍허너여 곱회를 위로커러/ 줌절 가스 비호는 아히들이나 불가 호노라

〈정화가〉의 마지막 부분은 사위와 딸, 어린 자손들과 함께 본래의 거주지로 돌아오는 장면을 형상화한 서술로, 작품의 정서적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며칠 동안 떨어져 있었음에도 ‘몇 하나 그리워한 듯’ 반가움으로 맞아주는 어린 자손들, 산 위까지 올라와 영접하는 ‘효부’의 모습 등은 귀환의 공간을 일종의 무릉선원적 정서 공간으로 재현한다. 강조된 어휘들이 보여주듯, 가족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장면은 김우락이 지향하는 최종적 귀속처가 혈연적 관계망 안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 정서 공간임을 확인하게 한다. 이 장면에서 반복되는 다정한 지칭과 친밀한 서술 역시 김우락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 실천으로써 고향에서 익힌 내방가사의 언

어 문화를 적극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재회는 동시에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더 깊은 그리움을 유발했을 것이다. 만주에 흩어져 있는 다른 가족들과는 재회를 기약하기 어렵기에 지난 만남이 ‘일장춘몽’처럼 느껴지고, 이별의 감정(別懷)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써 〈정화가〉를 창작하게 되었음을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서로 영화 기대하고 희망 부쳐 지내다가 좋은 시기가 닷치면 청명일월 다시 보세’라는 구절은 서로를 독려하고 연대하며 공동체적 희망을 유지하려는 다정한 돌봄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화가〉는 고난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만지고 조율하며, 관계의 지속을 위해 감정을 매개·전달하는 여성들의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내방가사 전통이 지닌 상호적·관계적 정서 실천이 망명지에서도 변형을 거치며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며, 여성들이 감정을 통해 공동체를 재구조화하고자 했던 실천적 문학적 행위의 중요한 사례가 된다.

3. 〈정화답가(情話答歌)〉에 보이는 응답과 감정의 공동체

어와 우리 현군이 너 말씀 드라시오/ 장축흔 이너 정회엿지호여 다 하리오/ 소진의 긴 헤라도 다 기록은 못호깃소/ 호물며 줄흔 문필 문장가지은 안목 우식될거 염여로다…겨오와셔 안즌 고지 통화현이 여기로다/ 친구지정 다 만너니 슬픈 중의 반갑도다/ 먼저 써난 동긔 숙질 좋조손니 면면이 츠즈오니/ 잇득히 반가우니 누슈가 압힐 막너/ 안부를 즈세 듯고 못본 안면 굵검든 츠/ 규아너 삼모어나 날 보려 왔단 말가/ 괴특고 반가우나 만년씨동 츠라호여…면면이 마조나와 잇글고 반겨호너…말이 깅지 싱(슈)흔터 간 디마다 가향²⁷이라/ 여기가도 반겨호고 저긔 가도 반겨호니 슬픈 중의 즐겁도다/ 양죽

26 익녀: 애녀(愛女)

27 가향(家鄉): 자기 집이 있는 고향.

지정 다 모혀서 희소담낙 헝다가셔/ 어와 마느리들 나의 말삼
드라시오

위의 인용문은 <정화답가>의 서두인데 ‘어와 우리 현군’은 김우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화가>의 호명 어구를 그래도 가져와서 답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의 ‘어와 며느리들 나의 말삼 들으시오’라는 구절을 보아 이 작품의 수신자가 김우락을 넘어 영양 남씨의 며느리에게도 말하는, 일종의 열린 구조로 내방가사가 소통되었던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오랜만에 친족들이 서로 모였을 때의 감정은 ‘슬픈 중에 반갑다’가 기본이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 표시한 어휘들에 보이듯이 ‘반갑다’라는 표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어 만주에서 이들의 만남이 얼마나 애뜻하고 즐거운 기억이었는지 보여준다. 무엇보다 ‘말이 객지이지 가는 곳마다 가향(家鄉)’이라는 구절은, 낯선 만주 공간이 친족들의 만남을 통해 고향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정화답가>의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어와 우리 현군’이라는 호명은 <정화가>에서 김우락이 먼저 사용한 구절을 그대로 받아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두 작품이 서로를 향해 말을 주고받는 관계적 구조에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와 며느리들 나의 말삼 들으시오’라는 구절은 <정화답가>의 말걸기가 김우락 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영양남씨의 며느리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열린 말하기 방식임을 보여준다. 이는 내방가사가 특정 개인 사이의 서신적 글쓰기를 넘어, 친족 여성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을 건네고 응답을 기다리는 소통 방식으로 기능했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만남은 일회적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떠올리고 이어갈 수 있는 관계의 기반이 되었는데, 그 기억을 묶어두고 다시 말걸기를 지속하게 해주는 매개가 바로 내방가사였다. 다음의 사례는 가사가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 ㉢ 여중호걸 우리 현군 우의지심 변희난가/ 녹십익 오십익이 만히 먹어 자랑인가/ 녕히딕 평히딕이 디접시가 극진키로/ 동기간 그런 마를 고마이²⁸ 드르실가 그리 알고 자랑히소/ 길 거르며 주는 냥터²⁹ 씨를 한들 못할손가/ 산기실에 너난 과실 속 괴리³⁰ 못 먹을가/ 어우와 형우씨요 혈남³¹ 할 줄 참 몰났소/ 혼즈 먹기 어려워서 압셔 가신 저 마느리/ 경충경 충가지 말고 이런 (귀)물 즈세 보오/ 반가이 즈시고서 나년 엇지 못 밧던고/ 그 후의 건는 모양 계집 일흔 영감 갖치 비속비속 도라보네/ 어와 우습도다 일장괴소 우습도다/ 노인이 급히 가면 횡인이 지너 불가/ 쉬엄쉬엄 거르면서 두루두루 구경하면 진중하여 조흘시고/

㉡ 거룩하신 우리 현군 시세에 맛당커러/ 기명은 히 겿시나 체면은 아조 몰나/ 타성딕의 (뺨)쳐 업드려 첫 인스 겨웃 하고 속웃 풀고 이³² 좁히니/ 손녀의 어린 소견 절박하여 헝난 모양/ 주인딕도 아라보고 입을 싸고 왜면헝데/ 그러도 징계 못히 통화현 나간 후의/ 그스이 굴근 이는 사장 디히 다 좁히너 간 디마다 실체³³ 헝니/ 어와 우리 미형 출가하신 스십열너 / 취줄 업고 명찰하여 양(꽃)으로 동명이니 제의 먹음의 들더니/ 무정세월 덧업서라어는 스이 둔기로드

위의 두 인용문은 <정화답가>에서 <정화가>의 조롱에 응답하는 장면을 정리해 본 것인데 <정화가>에서 두 며느리들의 먹는 자랑과 물욕에 대해 조롱하던 ㉠, ㉢의 내용은 위의 ㉠ ㉢로 정리된 부분에서 영양남씨의 변명과 항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 현군’이 우애의 마음이 변해 이렇게 험담할 줄 몰랐고 자신은 많이 먹은 걸 자랑한

28 고마이: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게.

29 양대: ‘강남콩’의 강원 지역 방언으로 확인되는데 <정화가>에 ‘콩줍기’라는 표현이 나와있어 이 의미가 가장 가까워 보임.

30 괴리: ‘골다’의 방언(평북, 중국 요령성)이 ‘구리다’인데 이 의미로 추정됨.

31 혈남: 남의 흠을 들추어 힐뜯음. 또는 그런 말의 의미인 ‘험담(險談)’의 의미로 추정됨.

32 이: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작은 곤충.

33 실체: 체면이나 면목을 잃는다는 ‘실체(失體)’의 의미로 추정됨.

것이 아니라 이웃의 대접이 극진했기에 그 말을 흐뭇하게 들을까봐 자랑한 것뿐이라고 항변한다. 이어 걸으면서 주는 콩들은 씨를 뿌리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산기슭에 난 과일들은 어차피 속이 비어 못 먹기 때문에 물욕을 부린다고 앞서 조롱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화가>에서 걷는 모습이 ‘경충경충’한 며느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영양남씨도 공감하며 ‘계집 잃은 영감같이 비속비속 돌아본다’고 함께 조롱하며 다시 생각해 ‘어와 우습도다 일장기소 우습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㉔로 정리된 장면인데 시누이에 해당하는 김우락에 대해 영양남씨가 체면을 모른다면서 역으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현군’으로 지칭되는 김우락이 이웃들과의 첫인사를 하자 말자 속옷을 풀고 ‘이’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이가 많았는지 ‘주인이 입을 다물고 외면할’ 정도였다며 과장된 수사를 보여준다. 나아가 ‘굵은 이’는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등 ‘간 데마다 체면을 잃는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무정한 세월 덧없다 어느 사이에 둔한 기운이로구나’라며 시누이가 나이가 들어 ‘체면 없는 행동을 하고 둔하다며’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받은 조롱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이자 공격인데 당연히 사태를 심각하게 몰고가고자 한 의도가 아니다. 내방가사에서 조롱과 놀림이 타자를 배제하는 언술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긴장을 풀고 웃음을 나누는 놀이적 장치로 기능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사례들은 내방가사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손윗 어른이라 해도 얼마든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은 경북 여성들에게 있어 내방가사라는 문화 양식은 전통이 지닌 위계의 완화와 친밀성의 강조, 그리고 유연한 화법이 허용되는 독특한 문화 체계였음을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정화답가>는 김우락의 <정화가>에 대한 단순한 회답이 아니라, 그 정서의 의미를 확장하고 감정의 윤

리를 재구성하는 작품임을 확인하게 한다. 눈물과 웃음, 고통과 희망이 서로 왕복하는 감정의 회로 속에서 김우락이 다정한 말걸기를 통해 공동체적 돌봄의 윤리를 실천했다면, 영양남씨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공동체적 감정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낸다. 결국 <정화답가>는 웃음과 눈물, 고통과 희망이 한데 얽혀 순환되는 감정의 공동체를 구축한 응답의 가사이며, 다정한 소통 방식이 망명 여성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문화적 힘이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할샤 이 세월이 엇지 이리 더디 가노/ 우리가 남즈런 들 통천하를 두러 거리/ 여옹호걸 다 츠즈도 국스틱평 흐제 마는 녀즈 되미 원통하오/ 광심인 듯 취심인 듯 진정헝기 어려우리/ 춘순을 기다리니 첩첩흔 산곡간의 무순 경기 보렷난 고/ 어와 우리 종씨 불초무상 한을 마오/ 우리들 늘근 슨람 흔 곡의 드러 안즈 수회만 실각 말고/ 명춘이 되거덜(나) 우리 현군 청히다가 빅수풍진 현날니며/ 즈른 막덕 (드)던지고 상상 봉의 올라가셔/ 우리 길지 고르 살피 지세 죠흔 명귀 츠즈/ 지정들 한데 모혀 객회를 위로헝식/ 이런흔 언약인 줄 우리 현군 아르시소

위의 인용문은 <정화답가>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남자런들 … 여자됨이 원통하오’라고 하는 탄식은 독립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주 망명에서 남성 가족들의 고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에 이들의 이러한 마음은 주변부에 놓인 여성의 원망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윤리 의식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품의 말미에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은 불확실한 망명 현실 속에서 ‘함께’ 의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영양 남씨는 ‘명춘이 되거든 우리 현군 다시 모셔 우리 길지를 살피고 다시 모여 객회를

위로하자'고 하며 <정화답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희망적 방향성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지리하다 이 세월이 어찌 이리 더디 가노'와 같은 탄식의 어조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즉, 이렇게 답가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다시 만날 미래를 꿈꿀 수 있었고, 가사라는 형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잇는 일이 곧 희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서적 기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화답가>는 전반부에서 함께 모였던 순간의 반가움을 드러내다가, 중반부에서는 <정화가>의 조롱에 응답하며 '상대의 조롱에 대한 변명 - 상대에 대한 되받아 치기'라는 내방가사 특유의 재담 구조를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미래의 정서적 구심점을 제시한다. 즉 <정화답가>는 단순히 <정화가>에 대한 회답이 아니라, 김우락이 건넨 돌봄의 감정을 응답·책임·연대의 감정으로 확장함으로써 감정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우락의 말걸기가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한 다정한 돌봄이었다면, 영양남씨는 답가를 통해 그 돌봄에 응답하고 이를 공동의 미래로 연결하는 정서적 실천을 보여준다. 두 작품이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답하며 이루어낸 정서의 순환은, 웃음·농담·탄식·희망이 왕복하는 하나의 감정적 교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경북 안동 지역의 여성들이 만주에서도 내방가사의 언어를 통해 서로의 고통에 응답하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지속과 생존을 도모했음을 의미한다.

4. 경북 내방가사의 전통과 다정한 소통 문화

삼종남미 함기 안즈 심담을 서로 비취/ 칙 보고 가스 보니 청음이 낭낭하고/ 농담으로 소일하여 칠팔일을 유숙하니/ 씨날 의스 만무하니 흘지에 드난 마암/ 통화현을 한 번 가서 친구 지정 반기리라

-<정화가>

일르며 집이 와서 슈일을 지닌 후의/ 질아 종손 먼저 오며
할떡 온다 전갈하니/ 신기하고 황홀하미 천상선직 나리신 듯/
서로 문답 다한 후는 이익이도 만홀시고/ 칙 보고 가스 보니 만
스가 다 잊치고 세월이 낙일네라

-<정화답가>

위의 두 인용문은 오랜만에 함께 모인 후 '책을 보고 가사'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김우락과 두 며느리('삼종남미'로 지칭됨)가 공유했던 정서가 유사했음을 확인케 해준다. <정화가>에서 김우락은 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해 '심담(心膽)을 서로 비춘다'고 표현하고, 가사를 들어보니 '청음(淸音)이 낭낭하고', '농담으로 소일하여'라고 기억하고 있다. <정화답가>에서 영양남씨는 김우락의 방문을 '신기하고 황홀하여 천상선객이 내려온 듯하다'고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책과 가사를 보는 시간이 '만사가 다 잊히고 세월이 낙'이 되는 기쁨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가문의 여성들이 모이면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가사를 짓고, 함께 낭송하는 일'이 일상적이면서도 서로의 연대를 확인케 해주는 공동체적 활동이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가문 내부의 여성들이 감정·지식·생활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책'과 '가사'가 중요한 매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친밀한 교류의 정황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정화가>의 조롱 장면들은 단순한 풍자적 언술이 아니라 내방가사 전통에서 축적된 문화적 관습에 따른 의도적 수사 전략, 즉 상대의 응답을 유도하고 정서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말걸기 방식이 있었음이 더욱 확실해진다. 친밀한 조롱과 재담(才談) 형식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정서를 배려하고 관계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내방가사가 지닌 '다정한 말걸기 - 응답하기'의 전략적 수사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운제는 일찍이 이러한 내방가사의 전승 방식에 대해

독회(讀會), 필사·전사, 상호 낭송, 친족 간 교환 등 ‘유전(流傳)’의 체계로 파악하며, 내방가사가 단순한 사적 기록을 넘어 ‘친족 네트워크를 따라 확산되는 집단적 감정 교류의 장(場)’이었다고 규정한 바 있다.³⁴ 이는 내방가사가 남성 중심의 한문 기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언어·기억을 중첩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대안적 기록문화였음을 의미한다. 경상북도 가문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모국어로 자기 삶을 표현하고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구축해온 역사문화적 실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근대 이전 여성들이 공적 기록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의 감정·경험·기억을 두루마리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후대에 전승할 수 있었던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감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 공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³⁵도 만주 망명 내방가사의 중요성과 잘 호응되는 논의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방가사의 문화적 전승이 만주 망명지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다시 실천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망명이라는 지역적·정서적 고립 속에서도 김우락과 며느리들은 가사 창작과 낭송을 통해 관계를 재확인하고 공동체적 정서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는 내방가사가 지닌 정서적 연대 형성의 기능이 경북 안동이라는 지역을 넘어 망명지에서도 지속될 만큼 그 문화적 힘이 상당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생생한 기록물을 통해 우리는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단순한 배후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생존을 떠받치는 생활의 실천자이자 관계의 조율자, 그리고 정서적 지지자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근래의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정서적

능력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상호적 반응성과 정동적 친화성을 기반으로 진화해 왔다.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저서를 통해 두 사람이 동시에 무언가를 보고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서로의 말을 끝맺어 주며 느끼는 안도감, 또는 말없이 손을 맞잡는 행위에서 경험되는 평온함과 같은 친밀성의 미세한 표현들이 인간 사회의 협력·공존·집단 생존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능력이라고 설명한다.³⁶ 이러한 인류학적 논의는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형성·전승된 내방가사의 문화적 기반을 해명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내방가사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기록하는 문학이 아니라, 다정한 말걸기·응답·위로·조롱 등의 다층적 방식으로 상호적 관계 맺기를 핵심 구조로 삼아 감정 공동체를 형성해 온 여성들의 문화 실천이었음을 작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방가사에서 반복되는 정서적 호명 화법, 상징된 청자에게 답가를 요청하는 방식, 이에 대해 답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구조,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인 조롱으로 친밀성을 재확인하는 순환적 구조는 등은 안동 지역의 내방가사 전승 방식이었던 독회(讀會), 상호 낭송, 필사·전사, 친족 간 교환 등의 소통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즉 당시 여성들은 내방가사를 통해 정서적 상호 작용을 했으며 그러한 관계 지향적 문화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 다수의 작품이 창작·확산·향유되고 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정화가>와 <정화답가>는 만주 망명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방가사 중 화전가류 작품들에 두드러지는 조롱과 웃음, 조롱에 대한 반박과 상대방에 대한 조롱이라는 일종이 재담 구조가 확인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혜원³⁷은 유머의 핵심을 ‘단순한 미적 반응이

34 김윤희, 「영남 여성의 가사 문학에 대한 1930년대 도남의 학술 연구와 그 의미망」, 『Journal of Korean Culture』 6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3, 277~284쪽.

35 마사 누스바움, 위의 책, 97~129쪽.

36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 이민아 역, 박한선 감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Survival of the Friendliest)』, 디플릿, 2002, 40~84쪽. 박한선이 감수의 글 <우자생존>에서 이 책의 원제인 ‘the Friendliest’를 한국어의 ‘우(優)’—도타고 인정 많고 품위 있는 상태—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논의도 참조해 볼 만하다.

37 이혜원, 「농담, 유머, 웃음: ‘유머의 윤리’를 중심으로」, 『미학』 77, 한국미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재조정하는 상호작용적 행위'로 규정하며 유머가 타자에게 상처를 주는지, 혹은 관계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윤리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분석한다. '우월이론', '해소이론' 등 전통적 설명을 비판하며, 유머는 '대항적 비난이 아니라 상황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정서적 조정의 기술'일 때 공동체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정화가>와 <정화답가>에 나타난 조롱과 농담의 의미를 의미와 맥락을 밝히는 데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앞서 확인했듯이 두 작품에 보이는 조롱의 양상은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해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공격적 비난이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고 상대의 응답을 유도하는 정서적 상호작용의 장치로 기능하는 '놀이'였던 것이다. 이는 다정한 소통을 통해 정서 공동체를 구축해왔던 경북 내방가사의 핵심 원리가 지리적·역사적 조건을 넘어 지속된 문화적 실천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5. 결론

본고는 만주 망명기 여성들이 남긴 <정화가>와 <정화답가>를 중심으로, 경북 내방가사 전통 속에서 형성된 다정한 소통 방식이 공동체적 정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만주 망명 가사의 작가 고증과 개별 작품 분석에 주력해 왔다면, 본고는 두 작품을 화답 관계 속에서 읽으면서, '말걸기-응답-되받아 말하기'가 만들어내는 정서의 순환 구조에 주목하였다. 두 작품은 관계적 언어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망명의 고통을 서로의 말에 기대고 견디며 재구성한 감정 공동체의 역학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이 말걸기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캐럴 길리건이 강조한 바와 같은 관계 회복과 상호 배려를 기반

으로 한 '돌봄의 윤리'의 구체적 실천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정화가>에서 김우락의 호명과 위로, 조롱과 유머는 모두 타인의 정서를 살피고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정한 언어였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회피가 아니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서를 조절하고 상황을 재해석하게 하는 돌봄의 기술로 기능하였다. <정화답가>에서 영양 남씨는 이러한 말걸기에 응답하며, 조롱을 되받아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다시 미래를 약속하는 언어적 실천을 통해 김우락의 돌봄을 연대와 희망의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두 여성의 말걸기와 응답은 서로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회와 미래를 함께 기획하게 만드는 정서적 기반을 형성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통 방식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전승된 내방가사 문화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다정함, 상호 배려, 감정 교류 등의 방식이 만주라는 망명지에서도 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방가사는 경북 여성들이 가문 단위를 중심으로 '책을 읽고, 가사를 짓고, 낭송하며, 답가를 건네는' 상호적 실천을 통해 감정을 조직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온 장르였으며, 이러한 언어적·정서적 자산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 망명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머와 조롱, 탄식과 위로, 약속과 희망이 오가는 감정의 순환 구조 속에서, 두 작품은 여성들이 주변부의 침묵 속에 머무른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준 감정의 실천자이자 관계의 조율자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만주 망명 여성의 삶을 기록한 문학 작품을 넘어, 돌봄·응답·연대의 감정 구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재구성의 기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누스바움이 강조했듯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일수록 공동체는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연민과 배려를 공유하는 감정적 기반 위에서 유지되는데, 이러한 점은 김우락과 영양 남씨의 다정한 말걸기와 응답 구조가 망명 공동체를 지탱

한 방식과도 유사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만주 망명 가사를 포함한 내방가사 전반에 보이는 공동체적 소통 양상과 다정함의 미학이 보다 깊이 있게 해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고순희,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고증적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 _____, 「만주망명가사〈간운사〉연구」,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 _____, 『만주망명가사문학연구』, 박문사, 2014.
- 권순희, 「조롱 형태의 놀이로서의 규방가사」, 『민족문화연구』 4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 _____, 「화전기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 맥락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53, 한국어문학회, 2006.
- 길리건, 캐럴, 이경미 역, 『침묵에서 말하기로: 심리학이 놓친 여성의 삶과 목소리』, 심심, 2020.
- 김윤희, 「내방가사의 전승 과정을 통해 본 여성들의 기록과 소통 문화」, 『국학연구』 40, 국학연구원, 2019.
- _____,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의 새로운 이본 자료 소개」, 『우리문학연구』 67, 우리문화회, 2020.
- _____, 「영남 여성의 가사 문학에 대한 1930년대 도남의 학술 연구와 그 의미망」, 『Journal of Korean Culture』 6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3.
- 누스바움, 마사 C, 임현경 역, 『타인에 대한 연민(The Monarchy of Fear)』, 알에이치 코리아, 2020.
- 박애경, 「가사문학의 장르 수행과 공동체의 감각」, 『고전문학연구』 66, 한국고전문학회, 2024.
- 성호경·서혜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해도교거사〉·〈정화가〉와〈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46, 한국시가학회, 2019.
- 이정옥,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 『국학연구』 40, 국학연구원, 2019.
- 이혜원, 「농담, 유머, 웃음: '유머의 윤리'를 중심으로」, 『미학』 77, 한국미학회, 2014.
- 정연정·천명희, 「고성이씨 소장 『해도교거사』의 국어학적 가치」, 『어문론총』 68, 어문학회, 2016.
- 헤어, 브라이언·버네사 우즈, 이민아 역, 박한선 감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Survival of the Friendliest)』, 디플룻, 2022.

Abstract**Affectionate Modes of Communication and Communal Emotion in <Jeonghwaga> and <Jeonghwadapga>**

Kim, Yun-Hee |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naebang-gasa texts <Jeonghwaga> and <Jeonghwadapga>, composed with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Manchurian exile community, to elucidate how their modes of affectionate communication sustained emotional bonds among women. Whereas earlier scholarship on Manchurian gasa has focused primarily on issues of authorship and bibliography, this study treats the two works as a paired exchange and analyzes the emotional architecture generated through calling, inviting, replying, and counter-speaking.

In <Jeonghwaga>, Kim Wurak employs intimate address terms, gentle invitations, humor, and playful teasing to soothe her kin and reanimate relational ties. These gestures exemplify what Carol Gilligan terms the “ethics of care,” foregrounding responsiveness and relational responsibility as strategies for enduring hardship. In <Jeonghwadapga>, Yeongyang Namssi transforms such gestures into sentiments of solidarity and hope by offering explanations, counter-teasing, and promises of future reunion. Together, the two texts map a circulatory system of emotions—laughter, lament, comfort, and anticipation—that articulates a shared emotional community among exiled women.

These interactive practices also demonstrate the continuity of the naebang-gasa tradition of Gyeongbuk, in which women historically sustained communal ties through reading, composing, performing, and exchanging gasa. The affectionate language and responsive structure of the two works reveal how this cultural repertoire operated as a vital “language of survival” in the unfamiliar conditions of exile.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e literary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naebang-gasa as a women’s record that maintained kinship cohesion through care, response, and affective solidarity.

Keywords Naebang-gasa, <Jeonghwaga>, <Jeonghwadapga>, Manchurian exile, affectionate communication, care ethics, emotional community, women’s writing
